

한 빅3 '경선률' 합의 도출 실패

경준위, '9월-선거인 20만명' 중재안 제시할 듯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측이 7일 '경선 블'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환)는 자체 중재안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경준위는 위원회 활동시한인 10일 까지 중재안을 토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준위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9월-20만명'안에 대해 주자간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의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전망이다.

다만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모임들이 경준위 중재안에 상당부분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선 블 협상이 기한 내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맹규경 경준위 부위원장과 대선주자 대리인 4명으로 구성된 '1+4 협의체'는 경준위 내부방침에 따른 자체 합의안 도출시한인 이날 오후 막판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빅3의 자체 합의안 도출은 자동으로 무산됐다.

경준위는 '1+4 협의체' 합의 무산

직후 곧바로 캠프 대리인을 배제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경준위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안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5, 16일 20만명의 선거인단 규모로 경선을 치르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행 규정에 비해 시기는 3개월 늦추고 선거인단은 5배 가량 늘린 것이다. 경준위는 중재안을 마련한 뒤 빅3 협의→최고위원회의 보고→전당대회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 추인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준위의 '9월-20만명'에

대해 박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은 "선거인단 20만명은 당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라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일부 내비쳤다. 박 전 대표측은 시기 때문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형준 의원은 "선거인단 규모를 떠나 시기가 9월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 정문현 의원은 "시기는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선거인단 20만명은 너무 적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일 여수시를 방문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상에서 오동도로 이동하며 2012 여수국제박람회 준비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이번 학기 마칠 것... 고민은 계속"

한나라 경선 맞물린 6월 이후 행보 주목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자신이 3월 중 대선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7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학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신학기 첫 강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7대 대선 출마와 관련해 어떠한 마음의 결정도 아직 내린 바 없다"며 "사회적 공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온 것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뿐이다"

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기존 입장은 확신하였다. 당시 대선가로써 합류할 생각은 없다는 표현이지만 '어떠한 형태로 보답'이라는 말에선 범여권 합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정 전 총장은 또 "4월 재·보궐 선거

지원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에 어떠한 형태의 참여도 지금으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 전 총장이 정치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신학기가 끝날 무렵인 6

월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의 대선률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장은 특히 "통합신당 모임의 한 의원이 찾아와 신당 참여를 제의한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 통합신당 참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강의 도중에도 "이번 학기까지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출마 결정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겠지만 여러분은 3~5월까지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집권하면 남북전쟁 우려"

우리당 장영달 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7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맡고는 다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북전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 이해찬 전 총리 방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과 8일 여수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7일 오전 항공편으로 여수에 도착한 이 전 시장은 여수시청에서 오현섭 시장으로부터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박람회 개최지인 소호오토장과 신항, 오동도

를 비롯 박람회 홍보관과 남산어시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오후에는 박람회 유치위원회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시민조청 강연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블과 관련, "경선의 시기와 방식은 특정 후보의 불리하다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오는 10일 이전에 당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여수 액스포는 여수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 때 대표단을 만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이 잘 살아야 지역통합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면서 호남 민심을 향한 적극

적인 '구애'에 나섰다.

이 전 시장은 8일 광주에서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등을 청취하면서 '당심 개언기'를 꾀한다.

이어 유준상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봉사단체 '좋은나라포럼' 광주·전남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격려 한다.

이 전 시장은 당초 지난달 7일 박람회 유치 위원회를 가진 뒤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렸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시민조청 강연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시최고

아래기재 증서의 소지자는 공시최고기일인 2007. 6. 16:0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밀 이를 개설하여 권리자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를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박정훈

2006카공 770 대선산업 주식회사 2006-11-15 16:00:00 1,47,014,865원 2006카공 776 전남도건(주) 2006-12-28 10:58,000원 2006카공 781 광주 서구 풍산동 564 글로벌빌딩 5층 2006-01-01 10:58,000원 2007카공 26 오세희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27 이운석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28 손현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29 김재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2 김현근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3 서현석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4 최창희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3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4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5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6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7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8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9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0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4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5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6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7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8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19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20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21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22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7카공 123 김현기 2007-01-01 10:58,000원 200